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31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3.06~2025.03.1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1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통령(석방, 내란, 파면, 탄핵), 오영훈, 평가, 마을, 탐나는전
경제·관광	관광객, 여행, 농가, 생산, 지원사업
지역·사회	대통령(구속), 도로, 범죄, 감염, 어린이

※ 분석 기간 : 25.03.06.~25.03.1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석방, 내란, 파면,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대통령 석방 후 정치권 격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우려 - 시민사회·지역정치권 대통령 파면 촉구 확대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 - 윤 대통령 석방 비판 성명 참여 논란 - 제주도 공무원 인사평가 및 감찰 논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우수' 달성 -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평가 권한 변경 - 제주도의회 입법 평가 결과 점검 강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나는전 포인트 대폭 상향 - 탐나는전 사용 한도 3개월간 확대 추진 - 탐나는전 혜택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
	탐나는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참여 마을정원 사업 본격화 -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설치 확대 - 마을어장 해루질 갈등 해소 추진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회복 - 제주 관광 트렌드, 맞춤형 콘텐츠 집중 - 제주 관광객 감소, 내국인 중심 심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제주 맞춤 여행상품 확대 출시 - 제주올레길 경제적 가치 3천억원 평가 - 제주-양양 항공편 재개, 관광활성화 기대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 성과 달성한 제주 농협 - 제주 감귤농가, 신상품 공급 확대 추진 - 제주 농가 친환경 방제 강화 필요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삼다수 브랜드 마케팅 강화 - 제주 탄산수 '탄산오름' 프리미엄 시장 진입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시설 지원 확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 한도 확대 - 농협 신규직원 채용 확대 통한 지역 청년고용 촉진 - 제주 한류 관광상품 개발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대통령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구속 취소 시민 반발 - 제주대학교 탄핵 반대 시위 - 법원 구속 취소 결정 비판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보수 예산 부족 심각 - 제주공항 안전장치 EMAS 설치 추진 - 도로교통 공사 사고 증가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폰 밀반입 급증 -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사건 - 제주경찰,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
	감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발생 - 제주지역 수두 발생 급증 - 제주지역 양파 노균병 확산 우려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쿨존 사고 저학년 집중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3월 6일~3월 12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98건임
 - 정치·행정 분야 368건, 경제·관광 236건, 지역·사회 394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석방, 내란, 파면, 탄핵), 오영훈, 평가, 가치, 탐나는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석방, 내란, 파면,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대통령 석방 후 정치권 격돌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정치권 갈등이 격화. 야권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 석방이 국민적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 탄핵 인용 및 재구속을 강력히 요구. 반면 여권은 법치 바로잡기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 밝혀 ·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하면서 야권은 "검찰이 내란
-------	----------------------	--

		<p>수괴의 줄개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력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지도부 즉각 사퇴 및 탄핵 추진 의사 밝혀 정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실정</p> <p>-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날짜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장외투쟁 등 행동 개시. 민주당 중심의 야권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신속한 탄핵 인용 선고 촉구 · 여권은 탄핵심판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가 충분히 숙고 후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현재의 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되며 정치·사회적 혼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p>- 시민사회·지역정치권 대통령 파면 촉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에서도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혁신회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합세하여 대통령의 재구속 및 신속한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시민사회 중심으로 대통령 석방을 '법 기술 불상사'라 규정하며 비판 여론 확산 ·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단체행동 및 기자회견 이어지면서 탄핵 선고 촉구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중.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국가적 혼란 수습을 위한 핵심적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
정치·행정	오영훈	<p>-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8명, 중국계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받았으나 제주도 자체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결론 내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음식값 초과 판단 있었으나 제주도 자체조사로 3만원 이내 결론 내림. 청탁금지법 과태료 대상서 제외 · 리조트 객실에서의 비공개 오찬 논란 불거지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으나, 조사 결과 음식 가격 산정 근거 부족 및 직무 관련성 결여 이유로 최종 위반 없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지침과 시중가 참조하여 음식 값 결정, 시민단체와 논란 지속 가능성 존재 <p>- 윤 대통령 석방 비판 성명 참여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 항고 포기 결정 관련 공동성명 발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비판하며 검찰 항고 포기 결정에 국민 상식과 법 감정 위반 주장.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지적하며 빠른 탄핵심판 촉구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 강조 · 국민의힘 제주도당, 오 지사의 성명 참여는 도지사 본분 벗어난 정치적 편향 행위라 강력 비판, 도민 분열과 민생 외면 우려 제기. 성명 참여가 지역 정서와 상반된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따른 지역 내 정치 갈등 확대 가능성 존재
	평가	<p>-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우수'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정치·행정		<p>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 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 품질 관리, 데이터 관리체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이는 전국 평균 및 광역 지자체 평균 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로 평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통해 도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데이터 제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 제주도는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 활성화로 디지털 혁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 <p>-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평가 권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평가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 제주 역사관과 도립 중광미술관 등 그동안 설립평가에서 부적정 판정 받은 시설 재추진 여부에 관심 집중. 법 개정 이후 제주도 자체 평가 권한 강화될 전망 · 자체 검토 권한 확대는 지역 여론과 수요에 맞춘 시설 설립 가능성 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증가에 따른 난립과 부실 운영 문제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됨. 문체부 가이드라인과 도민 여론 수렴 통해 설립 타당성 평가 신중히 진행될 예정 <p>- 제주도의회 입법 평가 결과 점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는 지난 3년간 입법 평가 위원회가 내린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중. 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 개정 권고, 통합 및 폐지 권고 등이 있었으나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추진 속도 더딘 문제 지적. 이에 상임위원회 통해 이행 결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추진 예정 · 의회는 법적 실효성 부족 조례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여 도민 혼란 방지 목적, 입법 평가를 조례 무분별한 제정 방지 수단으로 활용. 도의회는 평가 결과 이행 모니터링 체계 강화 통해 조례의 실질적 효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
	마을	<p>- 도민참여 마을정원 사업 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주민참여 마을정원 조성 공모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공동 공간 활용한 정원 조성 계획 발표. 선정된 공동체에 개소당 850만원의 사업비 지원, 정원 설계 및 관리 단계에서 전문 가드너 컨설팅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경관 구축 목적 · 지난해 공모 선정 마을은 주민 간 유대감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성과 보여, 올해에도 도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기대. 선정된 마을은 수국과 자생 식물 등 다양한 초화류와 관목류를 식재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유대감 증진 효과 기대 <p>-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설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공동 이용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신규 설치 및 기존 설비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 중. 마을 공동시설 에너지비용 절감과 지역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읍면 지역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이 우선 지원 대상 · 2017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도내 373개소에 태양광 설비

		<p>보급 완료, 노후 설비 114개소 수리 지원 등 유지관리 병행 중. 마을 공동시설의 에너지 독립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마을 단위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p> <p>- 마을어장 해루질 갈등 해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지역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 해루질 갈등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마을어장에서 채취 가능한 수산물의 종류와 시간대 등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 발표. 야간 입수 금지 및 수산자원 보호 위한 포획 제한 수산물 범위도 설정 예정이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 조례 제정으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해루질 관련 명확한 기준 설정 기대. 이는 지역 어촌계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비어업인의 취미 활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해 지역 내 갈등 완화 및 자원 보존에 기여할 전망
<p style="text-align: center;">탐나는전</p>		<p>- 탐나는전 포인트 대폭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월 적립 한도도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정책 시행 발표. 이는 도민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높이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주도의 특단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와 함께 포인트 상향 효과가 과거 사례로 증명되었는데, 과거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7%에서 14%로 상향됐을 당시 사용액이 월평균 39.2% 증가한 바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사업 예산 총 114억원을 추가경정예산 통해 확보할 계획 <p>- 탐나는전 사용 한도 3개월간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인당 월 적립 한도를 현행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약 3배 확대하여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예정.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간 포인트가 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기대 · 과거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올렸을 때 소비 증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혜택 확대로 도민의 소비 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촉진이 기대됨. 제주도는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확대 여부 검토할 방침 <p>- 탐나는전 혜택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경기 침체 상황 속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위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 결정하고 월 구매한도도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 결정. 이번 조치는 2020년 탐나는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혜택으로 지역 경제의 회복 및 내수 진작에 큰 효과가 예상 · 도는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함. 과거 사례에서 월평균 사용액 증가 효과가 입증되어 이번 조치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여행**, **농가**, **생산**, **지원사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월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12만 1,132명으로, 한국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점유율 10.8% 기록하며 다시 두 자릿수 점유율로 회복세 지속 · 중화권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90% 차지하며 중국, 대만, 홍콩 순으로 방문 증가율 기록, 특히 대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93.2%, 홍콩은 51.6% 증가하는 등 중화권 관광객 수의 급격한 회복 양상 - 제주 관광 트렌드, 맞춤형 콘텐츠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는 봄 시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사문화, 웰니스, 쇼핑, 미식, 액티비티, 사진 명소 등 다양한 개별 취향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여행상품 제시로 관광객 관심 집중 노력 추진 · 특히 제주 관광 공식 포털과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이 같은 맞춤형 콘텐츠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증대뿐 아니라 제주 관광의 다양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 창출 기대 - 제주 관광객 감소, 내국인 중심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2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총 161만6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했으며, 국내 항공편 축소, 해외 여행 증가 등 내외부 요인이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삼일절 연휴 기간에도 제주행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2.5% 감소하며 관광객 감소세 뚜렷하고,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내 관광산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관광업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 발생
-------	-----	--

경제·관광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제주 맞춤 여행상품 확대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신화월드는 가파도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스프링 피크닉' 패키지를 론칭, 가족 단위 관광객 위한 승선권, 돛자리 세트 제공 및 호텔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행 만족도 높이고 있는 실정 · 제주신라호텔도 가족 여행객 대상 포토 프로그램 패키지 '스프링 모먼트' 운영, 전문 사진 촬영 및 미식 프로그램 제공하며 다양한 취향의 여행객이 제주에서 특별한 봄 추억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 - 제주올레길 경제적 가치 3천억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올레길의 경제적 가치는 총 3,175억 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는 방문객들이 느끼는 경제적 효용과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비이용 가치를 합산한 결과로, 관광 효과가 뚜렷한 실정 ·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은 휴식과 회복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며,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유지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 - 제주-양양 항공편 재개, 관광활성화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생절차로 운항이 중단됐던 제주-양양 항공노선이 2년 만인 올해 8월 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파라타항공이 신규 항공기 도입과 함께 정기편 및 관광상품 개발 추진으로 양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 제주-양양 노선 재개는 동부권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간 관광 교류 확대 효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역 관광 업계에서는 관광수요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 실정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 성과 달성한 제주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농협이 농식품 수출 200만 불 달성, 성산일출봉농협은 첫 100만 불 달성하며 제주산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가 뚜렷해졌으며,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농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 · 수출농협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류비 부담 증가, 생산량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둠으로써 제주 농업의 수출 확대와 제주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 - 제주 감귤농가, 신품종 공급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농협은 올해 우량 감귤묘목 5만 본과 유라조생 3년생 대묘 3만 본을 농가에 공급하며, 저품질 감귤을 고품질 품종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농가 경쟁력과 소득 증대 추진 · 농협은 품종 갱신을 통해 극조생 감귤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 감귤 산업의 품질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효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농가들의 호응도 높은 실정 - 제주 농가 친환경 방제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업기술원은 최근 온난한 날씨로 인해 양파 노균병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농가들에게 생육 후기까지 주기적인 방제 및 감염된 양파 신속 제거 등을 적극 당부하며 피해 최소화 조치 촉구 · 지난해 양파 노균병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병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제 미흡 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도농기원이 적극적인 예찰 및 철저한 방제 활동을 권고하여 농가의 대응 유도

<p>경제·관광</p>	<p>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삼다수 브랜드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출시 30주년 맞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쿠팡,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다양한 할인행사 및 경품 제공, 소비자 공략 추진 · 삼다수는 30년간 제주 대표 생수 브랜드로 성장했으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사업 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우려가 높아지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개발과 지역 경제 기여 확대 필요성 제기 - 제주 탄산수 '탄산오름' 프리미엄 시장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프리미엄 탄산수 브랜드 '탄산오름'이 창업 1년 만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마켓에 공식 입점하며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 입증하였고, 제주 용암해수의 풍부한 미네랄과 감귤, 한라봉, 레몬 등 천연 향료 사용 및 강력한 탄산으로 소비자 호응 얻고 있는 실정 · 특히 인공 첨가물을 배제하고 청량감과 천연 향료를 극대화한 고품질의 제주 특산품으로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제주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 마련 기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시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체험·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 총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해 지역 경쟁력 제고 ·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편의시설과 장비 지원을 통해 인증업체들이 증가하는 체험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p>경제·관광</p>	<p>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15%로 높이고 월 최대 적립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도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지원 · 이 같은 적립률 상향은 과거에도 소비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기에, 지역 내 소비심리 위축 방지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 예정 - 농협 신규직원 채용 확대 통한 지역 청년고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제주본부는 2025년 상반기 지역농협 신규 직원 40여 명을 연령·학력·성별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하며, 지역 농업 및 축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계획 · 제주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동시에 신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젊은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 효과 기대 - 제주 한류 관광상품 개발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는 한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내 한류 드라마·영화 촬영지와 스타 방문지를 포함한 맞춤형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5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동행 시 추가 운영비를 제공 ·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통해 해외에서 제주 한류 관광 콘텐츠 홍보 효과가 커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한류 성지 제주'라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 (구속), 도로, 범죄, 감염, 어린이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대통령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구속 취소 시민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시민사회단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즉각 파면 촉구, 천막농성 돌입과 대규모 시민 집회를 예고하며 제주도 전역 시민운동 확대 · 시민단체는 검찰총장 심우정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검찰총장의 향고 포기를 강력 비판, 구속 취소가 내란세력에게 힘을 실어준 결정이며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규탄 - 제주대학교 탄핵 반대 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과 국민의힘 제주지역 당협위원장 등이 참가하여 제주대 정문에서 '불법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시위 개최, 탄핵 결정이 헌법적으로 부당하다며 즉각 중단 촉구 ·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태극기와 현수막을 동원해 탄핵반대 구호를 외쳤고, 대학가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대통령 지지세 확산 시도, 탄핵 반대 여론 결집을 도모 - 법원 구속 취소 결정 비판
-------	----------	--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시민단체들, 법원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흠결 이유"라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주요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상태에서 우두머리만 석방한 점에 분노 · 검찰총장 심우정도 공범이라 주장하며 즉각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고, 국민적 혼란과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제주지역의 시국집회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보수 예산 부족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로 파손(포트홀) 발생이 빈번하나 도로 보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지연되며, 겨울철 눈과 빙판길 영향으로 포트홀이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보수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제주시는 도로 보수에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 예산 필요를 예상했으나, 올해 50억원만 배정받았고, 서귀포시 역시 70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40억원만 배정되어 보수 지연에 따른 피해 우려 - 제주공항 안전장치 EMAS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는 활주로 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등 국내 8개 공항에 긴급제동장치(EMAS·이마스) 도입 추진을 발표했으며, 발포 콘크리트를 활용한 안전구역 구축계획 진행 · EMAS는 활주로 끝단에서 항공기 이탈 시 속도를 줄여 안전 확보가 가능한 시설로서, 제주공항 보조활주로(90m)는 최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항공사고 방지에 큰 역할 기대 - 도로교통 공사 사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출근시간 역주행 차량 사고 발생,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하여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5·16 도로에서도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 발생 · 제주도 소방본부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찾아진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와 중증외상 환자 이송시간이 평균 35분으로 8년 전보다 길어졌으며, 이에 신속한 구조와 이송체계 정비 필요성 대두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폰 밀반입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말레이시아 국적자, 제주공항 통해 필로폰 2kg 밀반입 시도 중 적발돼, 무사증 제도로 제주가 마약 밀반입 거점으로 악용되는 사례 증가하며 마약 거래 경로로 제주가 악용되는 현실 드러난 상황 · 제주세관은 마약 단속 전담 인력이 부족해 특송·우편 이첩을 포함하여 최근 6년간 총 52건의 마약 밀수 사건 적발을 알렸으며, 대책 마련과 제주공항 감시 및 단속인력 증원 필요성 제기 -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남성 A씨, 제주시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200m 도주하다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는

지역·사회		<p>면허취소 수준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시민 의식 개선 활동 강화 계획 <p>- 제주경찰,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서부경찰서장,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 및 카지노 환전 등 무질서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범죄 전담팀 운영을 예고하며, 특히 카지노 주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순찰 활동 강화 ·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늘어나며 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첩보 입수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고, 외국인 사회적 이슈 범죄 근절 위해 장기적 예방 정책 추진 계획
	감염	<p>-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두 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감염경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진행, 감염 확산 우려로 신생아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 · RSV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져 일부 부모는 보건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력히 비판 <p>- 제주지역 수두 발생 급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수두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약 4배 수준으로 2024년 1398명의 환자가 발생, 올해 2월까지 9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집중 관리가 필요 · 제주도는 수두를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학교와 학원 등 아동·청소년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수두 예방 홍보활동 강화 <p>- 제주지역 양파 노균병 확산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업기술원은 최근 평년 대비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양파 노균병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방제 작업을 당부하고 있으며, 곰팡이균으로 인해 잎 전체가 고사할 수 있는 실정 · 양파 노균병은 비나 안개가 많은 환경에서 특히 활발히 발생하여 4월까지 예방적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확량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있어 생육 후기까지 주기적 약제 방제 관리 권장
	어린이	<p>- 스쿨존 사고 저학년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중 초등 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하굣길 시간대(오후 2시6시)에 사고가 집중돼 특별한 주의 필요 ·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p>정지할 것을 강조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및 VR 가상현실 기술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확대 추진할 계획 발표</p> <p>-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새 학기를 맞아 저학년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VR)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어린이들이 위험상황에서 안전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 제공 ·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인도 및 보도 올바른 통행법, 학원버스 탑승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교육으로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체득해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	--

※ 본 발간물은 온라인 상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